

크누트 하임 박사, 잠언, 강의 13

국제적인 지혜

© 2024 크누트 하임(Knut Hei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Dr. Knut Heim입니다. 이것은 성경 지혜 문학의 국제적 차원의 세션 번호 13입니다. 성경 잠언 13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수십 년 동안 지혜문학으로 묘사되어 온 성경의 국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특히 잠언서뿐만 아니라 전도서, 욥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솔로몬의 노래라는 책도 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 학자 노먼 스네이스는 매우 영향력 있고 시의적절한 책인 『구약성서의 구별성』을 출판했습니다.

왜 그는 구약성서의 독특함에 관해 그런 책을 써야만 했을까요? 물론 그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구약성서가 기록되고 구성되고 수집될 때 구약성서가 진정으로 신성한 계시로 간주될 만큼 독특하고, 그것이 기록되고 구성되고 수집될 때 현대 환경의 다른 모든 것과는 다른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생겼나요? 1700년대, 특히 1800년대 이래로 우리는 구약의 일부 부분과 어느 정도 유사한 고대 근동 원본 텍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을 더 큰 문화적, 역사적 맥락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매우 흥미진진한 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다른 세상의 책이자 위의 영감을 받은 책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간의 경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흥미로웠고 학자들은 온갖 종류의 유사점, 연관성, 비교 및 많은 유사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지만 다양한 구약성경 본문의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잠언, 전도서, 욥기와 관련된 텍스트도 점점 더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 유사점 및 차이점을 문서화한 두 가지 중요한 책 모음이 있습니다.

제임스 프리처드(James Pritchard)가 쓴 구약과 관련된 유명한 고대 근동 본문으로, 흔히 ANET(고대 근동 본문)으로 약칭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Hallow가 편집한 The Context of Bible이라는 매우 최신의 최신판 작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질문은 구약의 다양한 부분이 다른 생산물 및 사고 패턴, 특정 공식, 문구, 표현 및 다양한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사하다면입니다. 인간과 신, 즉 신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그렇다면 구약 성서에서 특별한 점은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노먼 스나이시(Norman Snaith)가 고대 경전, 즉 이스라엘의 거룩한 경전에서 진정으로 특징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는 오직 한 하나님만을 향한 족장의 유일신론적 지향과 출애굽의 역사적 경험과 같은 것들을 강조할 것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혜문학과 관련되거나 지정되었던 책들을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유일신론은 있지만 족장들은 없고, 출애굽기는 없고, 성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 모세의 다섯 권의 책, 모세오경은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만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잠언 2장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고대 근동 환경의 문헌과 더 관련이 있는 지혜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고대 근동 문헌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이러한 인상은 점점 더 확증되기 시작했고, 1922년에 프랑스 이집트학자 Budge가 새로 발견한 Amenemope의 가르침에 따라 이집트 문헌을 출판했습니다. 몇 강의 전, 그리고 그 후인 1924년에 독일의 이집트학자 아돌프 에르만(Adolf Ehrman)은 실제로 아메네모페(Amenemope)와 잠언(Proverbs)에 한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단어 하나하나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제기되기 시작한 질문과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매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복사했습니까? 특히 사람들이 성경의 신성한 영감과 성경의 이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어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초기에 일부 사람들은 잠언의 이 부분이 신의 영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아메네모페가 복사한 원본이었을 것이라고 변호하고 말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제 한두 사람이 그런 주장을 펼쳤지만 대체로 별로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Amenemope의 가르침이 잠언서의 초기 진술보다 훨씬 더 빠르며 실제로는 수백 년 더 빠르다는 데 동의하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낸 다른 많은 이유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잠언이 잠언의 가르침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했다는 데 동의하는 모든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실상 모든 구약 학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Amenemope 책의 가르침 부분.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이 이것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몇 가지 세부적인 유사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성경 지혜 문학의 국제적 차원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논평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유대교인, 비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과 성경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성찰해 온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는 성경의 독특성에 대한 생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도 참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21세기에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전체적인 개념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가치 있기 위해 독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해석학적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기독교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이 다양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매우 적절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저자들, 인간 저자들 모두는 그 시대 최고의 철학적, 신학적,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 저작물과 전통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와 참된 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종교적 설득을 포함하여 인간의 통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곳에서 발견한 것을 신의 인도 하에 창의적으로 재사용하여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점에서 더 넓고, 더 깊고, 더 현명하고, 더 많은 것을 구축했습니다. 유대교-기독교의 신이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진실한 구성. 그래서 이것은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 경험을 통해 다른 종교적, 비종교적 전통에 참된 진리와 참된 지혜가 있음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우주의 본질과 인간 경험의 깊이와 미묘함과 폭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에 도달하기 위해 과학적 발견을 포함하여 최고의 인간 경험, 최고의 인간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13강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13강 2부에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가 지혜문학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 네 권의 책을 지혜문학으로 분류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내가 아는 한, 그리고 이것에 대해 약간의 작업을 해왔지만 20세기, 19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학자, 학자, 교수, 목사, 랍비들이 이 네 권의 책을 성서의 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저술이나 지혜 문학. 왜? 글썄요, 성경 본문에 대한 학문적, 학술적 참여가 19세기와 20세기까지 계속되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은 이 세 권, 아마도 네 권의 책이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는 방향과 형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까지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전통 모두에서 이러한 텍스트는 실제로 기독교 전통의 시적 텍스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욥기, 잠언이 시편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 유대 전통에서는 이 책들이 유대인 정경의 세 번째 부분인 기록물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토라, 모세오경, 모세 오경, 선지자서, 그 다음으로 저술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서 중에는 유대 전통에는 이 책들뿐만 아니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등 애가서 같은 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특히 장르 비평이나 형식 비평에 관한 독일 신학자 헤르만 궁켈(Hermann Gunkel)의 중요한 작업을 통해 사람들은 전도서, 잠언, 욥기, 시편과 솔로몬서는 어느 정도 구약의 많은 본문, 즉 다른 구약의 본문과는 매우 다르지만 고대 근동의 일부 본문, 특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본문과 더 유사합니다. 당시 이 책들에 대해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 명칭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가 본 것처럼 용어로서뿐만 아니라 페르소나로서의 지혜가 어떤 책보다 이 책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특징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신학적, 철학적, 교육적, 윤리적 용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침내 이 책들의 독특함을 실제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책에 지혜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고대 근동 문헌 연구에 참여한 성경학자들은 그곳에서 발견한 본문을 현재 구약성서에서 새롭게 지정된 지혜서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또는 이집트 배경의 텍스트.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윌프레드 램버트(Wilfred Lambert)가 바빌로니아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 아주 훌륭한 모음집을 다루는 아주 훌륭한 책 모음집을 썼습니다.

현재 40년 넘게 지속적으로 인쇄되어 온 훌륭한 컬렉션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 스스로는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구약 학자이자 메소포타미아 문학의 학자였던 램버트는 매우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지혜 문학으로 지정하는 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느꼈던 멋진 바빌로니아 문헌 모음입니다. 바빌로니아 지혜문학. 이제 실제로 20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정도 중반이 아니라 21세기로 빨리 감아보면, 이 모든 것의 결과 중 하나는 기독교 신학자들의 위대하고 유명하며 영향력 있는 구약 신학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성서 학자들, 지혜 문학은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으로 구성된 구약성서 신학에서도 내 마음은 잠시 동안 멍해졌습니다. 폰 라트(von Raat)의 다른 하나는 내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소위 지혜문학이라 불리는 이 책은 그러한 특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두 페이지, 아니면 열 다섯 페이지만 할애했습니다.

내 생각에 Von Raat는 이 모든 책에 대한 그의 참여가 10페이지, 15페이지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정말 불충분했고 von Raat 자신도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Die Weisheit Israels라는 매우 영향력 있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1970년에 The Wisdom of Israel로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세기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20세기 마지막 4분기에 지혜문학에 대한 예리하고 번성한 관심이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잠언에는 엄청난 학문적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도서와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어느 정도 솔로몬의 노래나 아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것은 사람들이 이 책들의 국제적 차원에 매혹되고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지만, 또 다른 정도는 von Raat의 작품과 그의 멋진 책을 통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혜 문헌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대 이스라엘의 삶과 관련된 실천적, 철학적, 신학적 문제를 현대 세계에 적절하고 흥미롭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최근, 지난 20년 동안 소위 지혜 문학에 점점 더 매료되면서 학계와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히 잠언의 결과 중 일부는 브루스 월트키(Bruce Waltke)의 2권짜리 주석으로, 천 페이지가 훨씬 넘는 주석과 유대인 학자 마이클 폭스(Michael Fox)의 멋진 주석으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2권짜리 작품.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고, 학문적으로 박식하며, 이 책을 실제로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통찰력과 지혜로 가득 찬 각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980년대 신학생 시절 지혜문학에 흥미와 흥미를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제적 차원의 흥분과 이 책들의 실제적 관련성. 매력적인! 이제 21세기로 빨리 넘어가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0세기 초반 수십 년 동안 성경적 지혜 문헌을 무시한 후, 우리는 대략 1970년부터 2005년, 2010년경까지 성경적 지혜 문헌에 매료되었습니다. 학문적 참여와 관심의 발전은 어느 정도 완전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즉, 2010년대 초반, 즉 지난 7년, 8년, 10년 정도 동안 마크 스니드(Mark Sneed)나 윌리엄 카인즈(William Kynes)와 같은 저명한 성경학자들이 수많은 출판물을 출판했습니다. 이제 지혜 문학의 장르 명칭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텍스트에 대한 학문적 참여의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지혜 문학의 개념 자체가 해당 텍스트와의 참여에서 매우

최근의 개념임을 지적하고 다시 인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인위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재발견하는 데 왜 수십 년이 걸렸습니까? 글썄, 이것은 때때로 일어나는 것 같은 일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모두가 한동안 그것에 대해 흥분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모두가 한 가지 특정한 것에 매료되었지만 같은 분야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강의 초반에 이미 암시했던 이 긴장, 즉 지혜 문학과 신학에 대한 분명히 다른 접근 방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실제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체의 더 넓은 문화적 환경에 적합합니까? 아마도 1970년대부터 윌리엄 매케인(William McCain)의 주석과 작업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초기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소위 지혜 문학과 구약의 나머지 부분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이 문학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만든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향이 세속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성직자도,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조국과 문화의 나머지 위대한 종교 전통과 거의 아무 관련이 없는 신학, 전문가, 지적 전문가였지만 그들은 당시의 국제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th) 자신은 소위 지혜 문학이 번성하게 된 솔로몬 왕의 궁정 계몽기에 대해 가장 유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대인들이 세속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로서의 세속주의와 사회적 현실로서의 세속주의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의 결함입니다. 인간 경험의 결함. 이는 서유럽, 북미에만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16세기와 17세기 이후 유럽 계몽주의 이후 하나의 사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정치적,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결함이다.

그것은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세속주의는 결함입니다.

이제 세속주의에 관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속주의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소위 구약의 지혜 본문에 대한 강의이므로 다시 그 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서나 고대 근동의 다른 글에 나오는 세속적인 사상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실제로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대에 우리 자신의 현대적 사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코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텍스트와 고대 사람들. 두 번째는... 잠시 생각의 흐름을 잃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13강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각의 흐름을 잃어서 잠시 말을 끊었지만, 우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속주의가 사람들이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 지혜 문헌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은 겉보기에 세속적인 저자들과 지적 사상가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작성한 저자들과 전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도, 선지자도, 신학자가 아니라 정치적 행정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 있었고 국제 문학을 공부했으며 한편으로는 이집트 법원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메소포타미아 세력의 법원의 외교 상대와 담론, 토론 및 교류에 학문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 국제적 영향력이 있었고, 이것의 국제적 차원을 흡수하기 위해 이것은 세속적 측면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었을 것입니다. 명백히 세속적 측면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 영향력을 비신학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글이 있는 문화적 환경과 이스라엘 문화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 이슬람 문학 학자들은 내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구성이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어느 정도 시대착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도 최근까지 그런 사람들에 포함시켰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시 시대착오적으로 서양 지식인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상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에 부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다른 지역의 서양 학자와 구약 성서 학생을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서양 학자들은 국제적, 즉 합리주의적이며 대체로 세속적인 지적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사고를 텍스트에 부과한 것은 서양 학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최근 출판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는 여기서 이러한 설명이 비현실적이며 아마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한 두 명의 특정 저자인 Mark Sneed와 William Kynes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어느 정도 솔로몬의 노래 등의 본문을 쓴 저자들은 자연스럽게 철저하게 그들 자신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어 성경의 나머지 구약성서와 그렇게 다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전 작가들이 종종 인정했던 것보다 저자들이 종교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고 신을 믿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훨씬 더 일관된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세속주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글들이 그렇게 다른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구약성서 전체, 특히 그 책들에는 문화적으로, 상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의 모든 측면에 세속성과 관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 인간의 삶, 직장, 인간의 성, 관계, 경제, 비즈니스, 농업, 동물과의 상호 작용, 세계 관찰, 그 당시 가능했던 수준의 과학적 참여에 대한 모든 경험. 이 모든 것은 다른 성경 본문보다 이 본문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단지 우연의 일치일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끔 쓰는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세계에는 물리학, 생물학, 수학에만 거의 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인문학에 더 관심을 갖는 다른 종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리학 전문가가 있고, 언어학 전문가가 있고, 역사학 전문가가 있고, 신학학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인문학 분야에 글을 쓴다고 해서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출판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훨씬 더 폭넓은 삶의 경험 중 한 가지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고대 작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이 책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대 성경 작가들의 삶과 세계 경험의 독특하고 핵심적인 신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의 신학적 참여와 묵상과 성찰을 진정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삶의 경험, 문화 등의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대체로 사라지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단순히 축하할 수 있고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신학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학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윌리엄 카인스(William Kynes)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이제 제안은 특히 잠언을 포함하여 고려 중인 성경 본문을 그다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자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더 넓은 그림에 진정으로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들을 고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그것들을 고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 그것은 지혜 문학이므로 다른 모든 것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끄는 시적 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 삶의 더 넓은 스펙트럼의 측면에서. 이로써 13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혜문학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